

## 트럼프 '관세 폭탄'...삼성전자 멕시코 라인 광주로 오나

광주·전남 대미 수출 기업들 관세 전쟁 파급효과 '예의주시'  
멕시코산 추가 관세 현실화...가전 물량 국내로 이전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美)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계가 향후 파급 효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시작으로,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은 한 달 간 유예하기로 한 가운데 이 기간이 지난 후 EU와 일본, 한국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예측되면서 지역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은 광주와 전남지역 기업들의 주요 수출국(광주 1위·전남 3위)으로, 관세 적용에 따른 파급 효과를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관세는 미국내 국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주문 감소와 수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렴한 인건비와 적은 물류비 때문에 멕시코 등 북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광주·전남 기업들은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동향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5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해 수출액은 155.5억달러로, 미국은 이중 33.3%(51.4억달러)로 1위에 올랐다. 전남 또한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35.3억달러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광주에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기아 광주공장이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생산 중인 냉장고, 가정용 회전기기(세탁기)였다.

이들 효과 수출품이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 관세를 받게 되면 미국 시장 내 경쟁력 약화로 인한 주문량 감소가 곧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장 먼저 맞닥뜨린 중국과 한달 간의 유예가 결정된 멕시코와 캐나다, 이들 국가에 진출한 지역 기업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미에 진출해 있는 광주·전남 기업들의 구체적인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자동차 전장설비 사출, 금형, 철강 등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전남지역의 북미 진출 업체 대다수가 대기업의 부품 납품기업이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완제품에 붙는 만큼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전 세계 물량 재배정을 실시,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을 타 국가로 옮겨 미국으로 우회 수출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피하는 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현대차그룹 협력사들 중에는 현대차그룹의 전략이 먹혀들 것으로 보고, 인건비와 물류비 면에서 장점이 큰 북미 공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트럼프 정부의 추가 관세가 지역 경제계 미칠 긍정적인 영향도 감지된다.

중국산 제품의 미국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지역에 본사를 둔 중국 진출 기업들이 국내 공장으로 물량을 옮겨 생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가전업체도 비슷하다. 가전제품의 경우 원가 민감도가 높은 탓에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삼성전자가 국내로 가전 물량을 빼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공장 외에도 생산 원가가 더 낮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선택지가 많지만 고품질과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멕시코 물량이 광주 공장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삼성전자는 한계 적자모델(판매할 수록 손해를 보는 제품)의 멕시코 이전 생산을 결정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광주공장 관계자는 "아직 그룹 차원에서 글로벌 물량 재배정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요한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본부 부본부장은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경우 멕시코 물량이 타 국가로 옮겨가면서 북미 진출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가 예의주시하며 북미에 진출해 있는 지역 진출 기업들의 피해 없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전남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5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어등초 앞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길을 걷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눈·눈·눈...일요일까지 10cm 더 온다

광주·전남 폭설·한파 기승  
눈길에 교통사고도 잇따라

광주·전남에 동장군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영하권의 한파(寒波)가 이어지면서 5~10cm를 웃도는 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에 눈이 집중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들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출근길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각종 낙상사고가 이어지는 등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일요일인 오는 9일까지 광주·전남에 눈이 내렸다 그쳤다가 반복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상청은 6일 새벽을 기점으로 장성과 영광에 대설예비특보를 발효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 지역이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광주와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분

석했다.

6~7일까지 광주·전남에는 5~10cm, 전남 동부 남해안에는 1~5cm의 눈이 더 내리겠다. 특히 6일 새벽 전남 서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 많은 눈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역민을 움츠러들게 하는 강추위도 계속되겠다. 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영하 3도,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영하 2도에 머물면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한편 지난 3일부터 내린 눈으로 광주에는 5일 오후 6시까지 최대 11.9cm(광주 광산)의 눈이 쌓였다. 전남 지역의 24시간 최심적설량(24시간 이내 새롭게 쌓인 눈이 가장 두껍게 쌓였을 때의 깊이)은 장성 상무대 17.6cm, 영광 안마도 15.9cm, 함평 월야 11.3cm, 영암 시종 10.3cm, 진도군 10.0cm, 나주 9.6cm, 신안 임자도 9.1cm, 담양 9.0cm 등이었다.

깊이 얼어붙으면서 5일 오후 3시까지 광주소방본부에는 총 24건(낙상 15건, 교통사고 4건, 안전

조치 5건)의 대설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소방에는 총 18건(교통사고 4건, 낙상 1건, 안전조치 13건)이 접수됐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영광군 군서면의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들이받고 논두렁에 빠졌다. 이에 앞서 전남 오후 5시께에는 나주시 무안-광주 고속도로 광주방향 1차선에서 SUV가 앞서 가던 다른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퇴근시간 교통체증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사고 모두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바닷길과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 도서 지역을 오가는 52개 항로 여객선 79척의 운항이 중단됐고, 구례 노고단-무안 청수길·진도 두목재등 경사가 급한 도로 6개 구간의 차량 통행이 막혔다. 무등산과 지리산 전남, 월출산 국립공원, 내장백암 등 국립공원 6곳의 출입도 통제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선 출마' 김영록 전남지사 인터뷰 ▶3면

KIA 김도영 모교 동성고에서 시즈 준비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22면

마포구 중부변전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가상이미지입니다

**R** 운동 좀 하고 올게요  
헬빙 운동시설

조용하고 안전해요  
육내화 변전소

주말엔 책 보러 갈 거예요  
작은 도서관

신나게 뛰어 놀아요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타러 갑니다  
중앙광장

강아지와 즐겁게 산책합니다  
활링 산책로

## 변전소로 놀러가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제, 변전소가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변전시설은 육내화 및 지하화하고  
자상에는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과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생활의 중심이 될  
새로운 변전소를 기대해 주세요.



주민친화형 복합문화공간 변전소 산책로, 놀이터, 작은 도서관, 강의실 등 주민을 위한 공간을 갖춘 신개념 변전소

